

1998. 10. 26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전망

투자협력처 투자조사팀

목 차

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1. 97년 해외직접투자동향	1
2. 98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2
3. 주요국의 98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현황 및 특징	3
II.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6
III. 외국투자자의 대한투자여건에 대한 평가	8
1. 한국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	8
2.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9
IV.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긍정적·부정적 요인	11
1. 긍정적 요인	11
2. 부정적 요인	12
V. 결론	12

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97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97년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4,240억불로 전년 대비 27%나 증가하여 세계무역신장율 9%에 비하여 볼 때 3배나 빨랐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세계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3조 5,410억불에 이르고 있음.

□ 각국의 다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였는 바, 선진국은 3,590억달러를 해외에 투자, 2,330억달러를 유치하였으며 개도국은 610억달러를 해외에 투자, 1,490억달러를 유치하였음.

□ 특히, 중·동구 지역은 여전히 투자 실적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동 기간 중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이 190억달러로 전년대비 44%나 증가하였고 유출액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음.

□ 이같은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선진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국경간 M&A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국경간 M&A가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49%에서 97년 58%로 증가하였음.

□ 지난해 거래규모가 10억달러 이상인 국경간 M&A는 1,61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M&A가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각국에서 진행중인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 움직임도 M&A를 더욱 촉진시켰는 바, 지난해 76개국에서 이루어진 주요 해외직접투자 규제변화 151개중 135개는 자유화에 관한 것이었으며 양자간 투자협정, 이중과세협정 153개, 108 개가 각각 체결되어 97년까지 총 1513개, 1794개에 달하고 있음.

□ 한편, 지난해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세계 해외직접투자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세계 GDP의 약 7% 정도가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에 의한 것인 등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가 경제통합 및 국제화 증대에 크게 기

여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최근 세계의 해외직접투자규모

(단위:억불,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가율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액	3,330	4,240	27.1
-해외직접투자 중M&A 규모	1,630	2,360	45.2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누계	3조 1,150	3조 5,410	13.7

자료원 : UNCTAD발표(98.9.2)

주: outflow 기준

□ 97년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이 그 나라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인도네시아가 GDP 대비 14.9%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싱가포르 9%, 태국 5.8%, 중국 5%, 말레이시아가 4.1%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1.6%를 기록하여 비교대상 6개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 98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최근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증시침체와 동유럽시장의 성장세 부진, 중남미에 대한 금융위기감 고조로 위축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둔화, 교역량의 감소 및 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임으로써 하반기에는 더욱 투자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는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과 아시아 최대의 투자국인 일본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지역 국가들도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EU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 사태 이후 전세계 신흥시장에서 국제금융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의 J.P. Morgan사는 '97년도에 약 2,470 억불에 달했던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이 금년도에는 1,860억불 수준으로 감소되고, 내년에는 1,190 억불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3. 주요국의 98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및 특징

가. 아시아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정치 및 사회불안과 주요 투자국들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98년 상반기 투자유입액이 전년동기대비 48%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농산물 및 플랜테이션분야, 전기 가스 용수분야, 기초금속, 요식업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임. 주요 투자국들은 대부분 투자를 줄였으며 그 감소율은 대만(-96.6%), 한국(-88.1%), 독일(-81.2%), 일본(-72%) 순으로 큼

□ 싱가포르

- 동남아 경제위기와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국내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대폭 감소(-47.1%)함으로써 상반기 투자유입액은 -28.3%를 기록함. 싱가포르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과 일본이며 이들로부터의 투자가 올 상반기 전체 제조업 투자유입액의 86%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

- 98년 상반기 직접투자유입액은 1,440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함. 주요 투자국인 일본, 싱가포르 등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비율이 97년 54%를 기록하였으나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올 상반기에는 44%로 줄었음

□ 태국

- 98년 1-7월까지의 직접투자유입액이 33.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하여 아시아의 투자유치 경쟁국 중 감소율이 가장 큼. 최대 투자국은 일본으로 그 다음 투자국인 미국에 비해서 규모가 두 배를 넘음

□ 중국

- 98년 상반기 직접투자유입액은 204.5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31%가 감소하여 아시아지역 경쟁국 중 그 감소폭이 가장 적었음. 홍콩, 마카오,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들로부터의 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한 반면 EU,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19.55%, 27.47%로 큰 폭으로 증가함

나. 중남미

□ 아르헨티나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98년 상반기에 58.2억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33.1% 감소하였음. 남미의 제3위 투자유치국인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의 총유입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22%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는 9.8~13.9%로 떨어짐.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아르헨티나 전체 투자 규모 중 약 32%를 차지하고 있음

□ 브라질

- 남미 최대의 투자 유치국으로 97년에는 전년대비 85% 증가하였고 98년에는 통계자료 입수가 불가능하여 정확한 동향을 알 수 없으나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직접투자 유입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칠레

- 98년 상반기 중 26억달러가 유입되어 97년 연간 총유입액 대비 52%를 기록함. 주요 투자국은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이며 영국으로부터의 올 상반기 유입액은 97년 유입액 대비 47%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다. 유럽 및 미국

□ 독일

- 98년 상반기 중 외국직접투자 유입액은 78.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의 바이너

스 17.4억 달러에서 대폭적인 증가를 보임. 이는 최근 노동시장의 경직성 개선, 활발한 국정간 M&A 시장에서의 독일기업의 인기, 마르크화의 대달러 약세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영국

- 98년 상반기 중 108.7억불이 유입되어 전년동기대비 -6.1%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 주요국별 투자비중은 미국(43.5%), 네덜란드(14.1%), 스위스(11.3%), 노르웨이(6.6%), 호주(6.5%) 순이며 그 뒤를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이 뒤따르고 있으며 역시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

- 98년 상반기 중 직접투자유입액은 464.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의 증가를 기록함. 최대 투자국은 영국으로 전년동기대비 20%가 증가함. 반면 금융위기로 인하여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크게 감소함. 미국은 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상반기의 미국 내 호황과 시장진출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세계 최대 투자유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현황

(단위 : US\$백만, 전년동기 %)

국가	1996	1997	1998(1-6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비고
한국	3,209	6,971	4,638(1-9월)	△ 15.4	신고기준
태국	13,094	10,608	3,360(1-7월)	△ 49.0	신고기준
인도네시아	29,931	33,833	8,344	△ 48.0	신고기준
싱가포르	5,792	5,964	2,206	△ 28.3	제조업/순투자
말레이시아	6,769	4,098	1,440	△ 25.0	신고기준
중국	41,725	45,278	20,450	△ 1.3	순투자
아르헨티나	8,497	14,016	5,825	△ 33.1	신고기준
브라질	9,644	17,858	-	-	순투자
칠레	4,801	5,041	2,608	-	순투자
독일	-2,723	-1,879	7,871	-	순투자
영국	42,805	36,946	10,875(1-3월)	△ 6.1	순투자
미국	76,453	90,748	46,479	4.0	순투자

1) 자료원 : 해당 무역관 보고자료

2) 신고기준(Approved FDI)

3) 순투자는 국제수지계정상 기준으로 총투자에서 철수 금액 등 투자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임(Actual FDI)

II.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 '98. 1-9월중 총외국인투자금액은 4,638백만불로서 전년동기 대비 15.4%가 감소함
- 올 5-9월의 투자유치액은 전년동기대비 95%나 증가하였으며 9월까지의 투자유치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75%를 차지하는 등 5월 이후의 투자유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1-4월의 투자유입액의 감소(전년동기대비 △69%)폭이 너무 커 전년 1-9월 동기의 유입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98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

(단위 : 백만불,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9월
금액	130	199	243	567	660	663	1,235	407	534	4,638
(전년 동기 대비)	△85.1	△45.2	△72.6	△63.8	170.1	24.9	203.4	128.7	23	△15.4

자료원: 재정부

- 지역별로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98. 1-9월중 일본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443백만불로 '97. 1-9월(231백만불) 대비 91.8%가 증가한 반면에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30.4% 감소하였고 EU로부터의 투자는 3.3% 증가를 기록하였음

<주요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

	'97.1~9월	'98.1~9월	증감율
일본	231백만불	443백만불	91.8%
미국	2,378 "	1,654 "	△30.4%
EU	1,759 "	1,817 "	3.3%

자료원: 재정부

□ 對韓 최대투자국은 미국으로 9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유입액 기준으로 전체 유입액 중 35.7%를 기록함

-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상위 3개국의 투자비중은 62.8%, 일본, 프랑스를 포함한 상위 5개국의 비중은 77.3%를 기록하여 선진국 중심의 투자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독일,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동기에 비해서 각각 537.2%, 91.8%, 538%, 2827%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는 자국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음

對韓 투자 상위15개국 현황(98년 1-9월)

(단위: US\$천, %)

순위	국가	건수	금액	총액대비 비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	미국	181	1,654,116	35.7%	△ 30.4
2	네덜란드	14	672,674	14.5%	△ 16.7
3	독일	25	583,300	12.6%	537.2
4	일본	130	443,282	9.6%	91.8
5	프랑스	14	225,896	4.9%	△ 43.7
6	말레이시아	7	214,845	4.6%	△ 70.1
7	싱가포르	8	204,975	4.4%	538
8	스웨덴	5	187,450	4.0%	2827
9	버진아일랜드	8	62,857	1.4%	
10	캐나다	7	61,451	1.3%	△ 66.4
11	스위스	3	61,241	1.3%	0.8
12	아일랜드	2	57,822	1.2%	△ 82.3
13	영국	16	54,497	1.2%	△ 51.1
14	케이만군도	2	31,204	0.7%	702
15	버뮤다	1	30,458	0.7%	6180

1) 자료원:재경부

2) 신고수리 기준

3) 버진아일랜드의 경우 97년 1-9월 통계자료가 없음

4)△ 표시는 감소분임

□ 투자 형태면에서는 구주취득(M&A)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98.1~9월중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173건에 1,008백만불로서 같은 기간 중 신고수리된 총 외국인투자액의 21.7%를 차지하여, '97년의 10%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98.1~9월중 투자신고된 1천만불 이상의 대규모투자 92건 중 34건(37.0%) 이 M&A 방식에 의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외국인에 대한 주식매각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함

<기존주식취득금액 비율>

	(단위 : 백만불, %)	
	'97년	'98.1~9
총 외국인투자(A) :	6,907백만불	4,638백만불
기존주식취득(B) : (M&A)	699백만불	1,008백만불
(B/A)	10%	21.7%

자료원: 재경부

☐ 산업별로는 제조업 투자비중이 증가함.

- '98.1~9월중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17건에 2,686백만불로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의 57.9%를 차지, '97년 평균 제조업투자 비중 33.7% 보다 크게 증가

<제조업 투자비중>

95년	96년	97년	98년 1-9
45.5%	60.3%	33.7%	57.9%

자료원: 재경부

III. 외국투자자의 對韓 투자여건에 대한 평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 대한투자 상위 8 개 국가에 소재한 11개 KOTRA 무역관(투자유치거점 무역관)에서 미국의 Schroder사 등 21개업체를 대상으로 아시아지역 투자담당자와 면접형식으로 조사한 무역관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한국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

☐ 세계경제의 침체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경제위기를 맞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 회복세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하고 대체로 3~4년 정도 후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유럽지역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의 기업들은 한국경제가 회복되기까지 평균 3년 정도 소요되어 2001년 이후부터 정상적인 경기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일본 기업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의 회복시점을 우리나라 자체의 노력보다도 아시아 경제 및 세계경제 상황 변화에 달려있다고 하며,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고 난 후인 2000년 정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EU 및 독일, 프랑스의 기업들은 미국, 일본 기업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시기를 99년 이후라고 전망함으로써 가장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2.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가. 투자 매력도 평가

□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은 최근의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대해 (1)현지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자국통화의 상대적 가치상승(통화 프리미엄) (2)현지정부 및 국민들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 등으로 인식하고 있어 반드시 우리나라 투자유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 대체로 우리나라의 튼튼한 산업기반, 양질의 노동력, 높은 잠재적 시장성 등을 투자매력도로 꼽고 있으며, 특히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잠재적 시장성을 가장 큰 투자매력으로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내수시장과 북한시장 진출의 현지화 전략으로 대한투자를 인식하고 있음
- 일본기업의 경우 한국시장의 잠재성, 우수한 노동력과 함께 투자 개방도가 투자유치의 가장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나. 개선사항 지적

□ 실질적이고 조속한 구조조정

-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속히 완료하여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건실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풍토를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정리해고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의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에서 보여준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크게 실망스런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정확한 기업의 가치측정과 자료의 투명성 제고

- 한국 기업체들은 아직도 자기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낙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M&A 나 부동산 매각 협상에서 비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합작투자에 대해 인식과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부족은 계약 초기단계에서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함

☐ 투자 정책의 실효성 확보

-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여러 정책들을 정부가 신속하게 내 놓고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의구심을 품고 있음. 즉 그 예로 현대자동차의 분규처리에서와 같이 법규와 실제 적용에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타적 국민의식

-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인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단지 자금지원만을 요청할 뿐 경영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짙다고 함. 즉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소유지분에 비례한 경영권의 이양보다 이면계약에 의한 경영권 보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또한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은 경영권을 외국인이 획득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

다. 투자 시기

☐ 지금 현재와 앞으로 1-2년 동안이 우리나라에 투자적기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많았음. 한국의 잠재적 시장성과 빠른 경제회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완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시기가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함

라. 최근 한국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견해

☐ 전반적으로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은 높게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 발표된 제도들의 조속한 시행과 그 실효성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IV.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1. 긍정적 요인

☐ 국내 경제지표의 회복 전망

- 매3개월 마다 조사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최근 경제 예측에 따르면 한국은 98년 실질GDP 성장율이 -6.9%로 하락이 예견되나 99년에는 -0.2%를 기록하여 그 하락세가 줄어들 것이며, 경상수지는 98년 GDP 대비 11.9% 흑자를 기록하고 99년에도 8.5%로 계속 흑자 추세를 이어가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성 회복 움직임

-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3차 IMF·IBRD 협동연차 총회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음
- 클린턴 미국 대통령
“한국은 태국과 함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성공하고 있다. 두 나라엔 고통스런 조치를 취할 의지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
- 미셸 캉드쉬 IMF 총재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인다”
-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
“한국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신흥공업국과 다른 점을 보여줬다. 한미경제는 내년 초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 중심의 공조체제 구축 노력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차에 걸쳐 금리인하(5%로 인하)를 시행하고 EU국가들의 단일 금리 인하 추진(3.3%로 통일)하는 등 서구 선진국의 세계경제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 아시아 경쟁국으로부터 외국자본 이탈

- 중국의 국제신탁공사의 파산(광둥국제신탁공사) 등 금융권의 부실과 외국인투자 유치 주요 경쟁국의 하나인 말레이시아의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해 이들 자본이 한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

2. 부정적 요인

□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화 우려

- 세계경제 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관망적인 자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함

□ 외국투자자들의 국내투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구조조정 지연과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외자유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의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현대자동차의 노사문제 처리과정에 대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V. 결론

-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둔화, 교역량의 감소 및 내수시장 위축은 다국적기업의 해외 직접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및 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국가신용도 하락은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98. 1-9월 중 총투자금액이 4,638백만불로서 전년동기 대비 15.4%가 감소하였으나 5월 이후 급속한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음. 특히 7월에는 12억3천5백만불로서 전년 동월 대비 200%이상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투자여건에 대하여 주요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유치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제도와 현실 적용간 괴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시기를 3- 4년 정도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적기로서 현재 또는 1-2년 후를 내다 보고 있음
- 외국 다국적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환경 개선사항으로 실질적이고 조속한 구조조정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활동여건 개선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혁신적인 투자유치 조치들이 구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외국의 잠재적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내수시장확대 가능성과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앞서 있는 첨단산업 기반, 투자유인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은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투자유치확대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음. 그러나 앞서 기술한대로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와 함께 국내기업과 국민들의 의식수준 제고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보고서는 UNCTAD, 재정경제부, 8 개국 11 개 KOTRA 해외무역관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KOTRA 투자협력처 투자조사팀(551-422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